

“깨달음 한 길 수행방법은 달라”



목조선 남종선 북종선

목조선
‘목조선(默照禪)’에서 ‘묵(默)’은 묵묵히 말을 있고 모든 분별심과 망상을 끊은 채 마음을 오롯이 해 좌선하는 것을 뜻하며, ‘조(照)’는 지혜로서 본래 깨끗한 마음(本來淸淨心)을 관조함을 뜻합니다.

넘어 묵묵히 좌선하면 저절로 불성(자성,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두 선법은 ‘화두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목조선은 ‘묵묵히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는 것이었고,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개인주의적이며 시적(詩的)이며 문학적이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두가 있어야 한다 주장한 간화선은 와일드하고 적극적이었으며 시대적 의식이 강해서 사회적, 국가주의적이었습니다. 문자와 지식, 지성을 부정했고 무심, 무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조선을 일명 ‘조동선(曹洞禪)’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목조선은 한국에는 없고 중국, 일본에만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 잠시 들어와다가 간화선에 밀려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목조선...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시적 간화선... 와일드하고 적극적이며 사회적 국가주의적

목조선은 중국 송대의 선승 경지정각(宏正正覺, 1091~1157) 선사에게 의해 성립했습니다. 목조선도 조사선과 같이 참선할 때 화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좌선하고 앉은 채 모든 생각을 끊고 본래 깨끗한 자신의 마음(本來淸淨心)을 관조하는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선 공부법입니다. ‘오로지 묵묵히 앉아 있다’고 해 ‘지관타좌(只管打坐)’라고 합니다. 명칭만 다를 뿐 전통선인 조사선을 잘 계승하고 있는 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승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 선사는 간화선을 정립했습니다. 간화선은 화두참구를 통해 깨닫는 선법입니다. 두 선 모두 목표는 깨달음이지만 이론과 수행방법이 현격하게 달라 심하게 싸웠습니다. 차이는 화두에 있었습니다. 간화선에서는 반드시 화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목조선에서는 화두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간화선의 대표자 대해 선사는 묵묵히 앉지만 있는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해 ‘묵조는 샅된 선(默照那禪)이다’ ‘묵조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무사선(無事禪)이다’ ‘짜늘한 재처럼 아무런 지혜 작용이 없는 고목사화선(枯木死灰禪)이다’ ‘어리석은 선(痴禪)이다’ ‘맹목적인 선(盲禪)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경지정각 선사는 간화선을 평해 “깨달음을 기다리는 대오선(待悟禪)” “공안(화두)과 깨달음에 얽매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묵조명(默照銘)’이라는 글을 지어 ‘목조선만이 지혜의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본을 꿰뚫어 비출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처와 조사들이 전해온 참된 선법’이라고 주장했으며, ‘목조선이란 ‘무심(無心, 무번뇌심, 무분별심) ‘무사(無事, 무번뇌사)’라고 해 “답답하고 묵묵히 좌선에 전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선이다” 또는 “일체의 사량 분별을 뛰어

남종선과 북종선

선의 초조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리달마(?~528)입니다. 달마 이후 그의 선맥은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弘忍, 602~675) 때까지 한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5조 홍인 선사 때에 이르러 신수와 혜능 두 제자에 의해 두 계통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남종선(南宗禪)과 북종선(北宗禪)입니다. 남종선의 대표자는 육조혜능(慧能, 638~713)이고 북종선의 대표자는 대통신수(神秀, ?~706)입니다. 혜능은 양자강 남쪽(강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남종선, 신수는 양자강 북쪽 즉 당시 수도인 낙양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북종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남종선의 선맥은 혜능 선사 이후 청원행사, 남양 회양, 하택신회, 석두회현, 마조도일, 백장선사, 황벽, 임제 등 유명한 후손들이 속속 배출돼 이후 중국의 선은 남종선이 거의 휩쓸게 됐습니다. 따라서 남종선은 조사선의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종선과 북종선의 차이는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있습니다. 돈오는 남종선이고 점수는 북종선인데, 돈오란 한 번에 모두 깨달아 마친다는 뜻이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인 차이점이 결국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돈오사상은 육조혜능(638~713)보다 300년 정도 앞서 도생(道生, 355~433) 스님이 <돈오성불론>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호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혜능 선사 이전까지는 점수(漸修)로서 차츰 차츰 닦아서 깨달음의 극처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는데, 혜능 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 번에 닦아 마친다’고 하는 돈오사상이 새롭게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음 여인들의 수행법

‘공’도리 시로 읊은 안목 열린 선지식

44 소동파의 누이 소소매

“저 달은 은하수 들고 돌아 둥글어 졌는가(月磨銀漢轉成圓)/ 새하얀 얼굴 빛은 온 세상 다 비추네(素面舒光照大千)/ 팔과 팔 연이은 원숭이(산)들이 헛되어 달그림자 잡으려 하지만(鐘磬山空捉影)/ 높이 뜬 저 달 푸른 하늘에 그대로 걸려있네(孤輪本不落青天).”
이 글은 <관음예문(觀音禮文)>이라는 의식문에 나오는 글이다. 아름다운 의식문으로 정평이 난 <관음예문>은 송나라 때의 대문호로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소동파(蘇東坡, 1036~1101) 거사의 누이, 소소매(蘇小妹)가 작사한 문장으로 이름 높다.

위 시는 중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든 나타나서 화신불(化身佛)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앞에 무수한 몸으로 나타난다고 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이라고도 하고,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에 달이 비친다(千江有水千江月)’고도 표현한다. 유정(생명체), 무정(무생물)을 비롯한 일체가 불성, 일심의 나뭇잎을 노래하고 있다.

소소매의 오빠 소동파의 오도송 역시, 이 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소동파는 여산 흥룡사에 주석하던 동림상종(東林常總) 선사를 만나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정(有情)설법만 듣고 무정(無情)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충고를 듣는 즉시, ‘무정설법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자리잡게 됐다. 화두일념에 들어 잠깐이나 길을 가다가 문득 큰 폭포가 쏟아지는 곳에 이르러 비로

소 천지가 진동하면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순간, 무정설법의 도리를 깨닫게 됐다. 이때 지은 계승이 바로 이것이다.

“시냇물 소리가 곧 크나큰 진리의 설법이요(溪聲便是廣長說)/ 울긋불긋한 산천초목이 어찌 정정 법신이 아니겠는가(山色豈非淸淨身)/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밤이 되면 팔만사천 계승이 되니(夜來八萬四千偈) 이 이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서시킬 것인가(他日如何學似人).”

이와 같이 깨달음은 소동파의 누이동생 소소매 역시

린다.

“輕風舞細柳(산들바람에 가녀린 버들이 춤추고) 淡月隱梅花(으스름 달빛에 매화가 숨었다네).”

그러자 소소매는 “너무 통속적”이라고 평한다. 이어서 오빠 소동파는 ‘요(搖)’와 ‘영(映)’을 넣겠다고 말한다.

“輕風搖細柳(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버들) 淡月映梅花(으스름 달빛에 비치는 매화).”

소소매는 이번에는 “고인들이 상투적으로 많이 쓴 글자”라며 더욱 혹평한다.

할 말을 잊은 두 사람에게 소소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扶)’와 ‘실(失)’을 넣고 시를 완성한다.

“輕風扶細柳(산들바람은 가녀린 버들가지들 지탱케하고) 淡月失梅花(으스름 달빛에 매화의 모습은 사라지네).”

이에 두 사람 모두 “절묘하다”며 찬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부(扶)’자를 사용한 것은 생동하는 버들가지의 움직임이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바람에 의한 연기법(緣起法)의 소산임을 상징하는 듯하다. 또 ‘실(失)’자를 씌으로써 담담한 달빛과 하나된 매화를 공(空)으로 파악하는 ‘연기 즉 공’의 도리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소소매는 소동파에 필적하는 안목과 문학적 재능, 아름다운 마음씨와 외모를 겸비한 우바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김성우 기자

소동파에 필적하는 안목과 문학적 재능 겸비해 아름다운 의식문으로 정평이 난 ‘관음예문’ 지어

신행계시판

● **나를 찾는 여행캠프**=마하보디교육원은 12월 26~28일 울산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제2회 청소년 상담심리학과 ‘나를 찾는 여행캠프’를 실시한다. 초등 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미술활동, 놀이활동 등을 진행하고 참가비는 20만원이다. 선착순 30명 접수 가능. (052)264-1007

● **미음바꾸기 명상클리닉** **염지관 수행**=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에서는 12월 20~21일, 1월 3~4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에서 마음 바꾸기 명상클리닉 염지관(念止觀) 수행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20만원

로 교재와 식사비 포함이며 선착순 12명 접수가능하다. (02)2236-5306

● **단식 및 간화선 수행**=안성 활인선원은 1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1일, 4~11일 7박8일 집중 단식 수행을 실시한다. 단식과 간화선 수행을 통해 집중력 향상 및 난치병, 성인병 치료 예방을 체험하고 3개월간 출가안거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60세 이하 성인. 참가비는 120만원이고 12월 10일까지 등록시 30만원 할인된다. 39명 선착순 접수. (031) 671-770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neter.com.kr
E-mail: heegyun@avata21.com

경남복지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년제 / 2년제 학생모집

3년제(現, 중3) / 2년제(성인반) 고등학교 과정 (보건간호과)으로 대역진학이 가능합니다!!

경남 남 최초의 보건간호과(간호전공 / 실버케어전공) 인가
복지 보다 앞서 가는 간호 전문 교육
고 지(간호) 교육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 실습장 최다 보유
· 덕 · 체를 완성하는 인성 교육의 장
민하지 마세요! **경남복지고등학교**는 항상 열려 있어요!

취득 자격증	전형 일정
간호 조무사 요양보호사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교부 : 본교 홈페이지 입학 자료실 탑재 다운로드 원서접수 : 11. 17 ~ 12. 19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접수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재학 중 취득 가능 교육 이수 후 무시험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복지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위원회 기타 문의 : 홈페이지 참조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2년제 단기 졸업 과정(성인반) 입학 상담중!! 현재 모집중!!
고등학교 졸업을 원하는 성인남녀는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위탁교육기관
-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위탁교육기관
- ◇ 함안 / 창녕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국가공인자격(1,2급) 양성
- ◇ 행복하미음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5대 적멸보궁 (봉정암 · 정암사 · 법흥사 · 상원사 · 통도사) 십보일배 대참회 순례기도

귀의삼보 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 충만하시길 엿드려 기도 발원 합니다. 저희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께서 대참회 기도 및 모든 불자들의 소원 성취, 국대민안을 위하여 5개월간 부산을 출발해 강원도 봉정암까지(총 길이 720km) 5대 적멸보궁을 십보일배로 역사적인 대참회 기도를 떠납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업장소멸을 기원하며 떠나는 주지스님의 원력기도에 많은 응원과 동참 바랍니다.

- ▶ **입재** : 2009년 양. 1월 1일 오전 9시 불광사 법당
- ▶ **출발** : 부산 초읍 불광사
- ▶ **회향** : 5개월 후 초읍 불광사
- ▶ **동참금** : 한 가족 10만원
- ▶ **문의** : (051) 809-1420

동참계좌 : 농협 121047-52-143978 (예금주 이정민)

※ 기도에 동참하시면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 족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신도회 일동



경남복지(간호)고등학교 (구.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 055)583-7112 (교무실) www.yeun.sk.kr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 (미륵사 내)